
5월 독일지역 관광시장동향

■ [동행] 경제·정치적 불안정에 따른 독일인 여행 심리 위축 및 단거리 선호

- 여행에 대한 높은 가치 부여: YouGov와 독일항공협회(BTW)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독일인들에게 여행은 여전히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함. 응답자의 64%는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행이 필수적이라고 답했으며, 50% 이상은 여행을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음.
- 경기 침체 및 고용 불안의 영향: 그러나 전체 응답자의 67%가 현재의 정치·경제적 기후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여행지 선택과 예약 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저소득에 대한 걱정과 고용 유지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아예 2026년에 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26%에 달함.
- 유럽 내 단거리 여행 집중: 이로 인해 독일인들은 독일과 멀지 않은 여행지를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으며, 전체의 35%가 유럽 내 여행지를 선호함. 또한 22%의 응답자는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 기존에 방문한 적이 있는 친숙한 여행지와 호텔을 재예약하는 추세를 보임. 현재 독일인들이 여행 시 가장 큰 안전함을 느끼는 요소는 ‘유연한 예약 및 취소 옵션’, ‘현지 상황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보험이 포함된 패키지여행 상품’ 순으로 나타남.

■ [동향/전망]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글로벌 관광 흐름 재편과 유럽 내 반사이익

- 관광 수요의 지리적 이동: 페르시아만 전역으로 확산된 중동 전쟁의 여파로 전 세계 관광객들의 이동 경로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으며, 유럽이 가장 큰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됨. 불안정한 정세에 극도로 민감한 관광객들이 즉각적으로 대안지를 찾으면서 바르셀로나의 경우 8%~15%, 아테네는 10%~18%의 관광 수요 증가가 예상됨.

- 분쟁 기간에 따른 구조적 변화 전망: 베를린 비즈니스 혁신 대학원(BSBI)의 젤마 발렛(Gemma Vallet) 부학장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수요 이동은 분쟁의 지속 기간에 따라 장기적인 구조 변화로 고착될 수 있음.

분쟁 지속 기간	관광 시장 영향 및 전망
3~6개월 (단기)	분쟁 종식 후 기존의 관광 흐름과 수요로 비교적 쉽게 복귀할 가능성이 높으며, 최고급(Luxury) 여행객들이 가장 먼저 기존 목적지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됨
12~24개월 (중기)	글로벌 관광 흐름의 구조적 재조정(Structural Realignment)이 일어나며 대안 목적지가 고착화 됨
3~5년 (장기)	지정학적 관광 리스크에 대한 영구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지며 비즈니스 모델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함

- 주요 수혜 지역 및 장거리 안전 시장: 현재 여행객들은 남유럽 (바르셀로나, 아테네, 파리, 발레아레스 제도, 코스타 델 솔, 포르투갈,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등)을 집중적으로 찾고 있음. 유럽 외 지역에서는 카리브해, 싱가포르, 태국, 모로코와 더불어 일본이 ‘안전하고 열망하는 장거리 시장(safe, aspirational long-haul market)’ 으로 포지셔닝에 성공하며 최고급 관광 지출이 7%~12% 증가하는 수혜를 입고 있음.
- 2030 장기 트렌드 전망: 2030년까지 관광 시장의 성장은 ‘안전성, 유연성, 깊이(Safety, Flexibility, Depth)’ 를 결합한 형태가 주도할 것임. 장기적인 승자로는 안전성이 확보된 럭셔리 관광, 철도 관광, 웰니스 리트릿, 슬로우 트래블, 독채 빌라 생태계, AI 개인화 여행 플랫폼 및 국내 프리미엄 관광이 꼽히는 반면, 과도하게 글로벌화된 환승 관광, 분쟁 지역 크루즈, 환불

불가능한 경직된 상품, 항공유 의존형 대중 관광 생태계는 쇠퇴할 것으로 전망됨.

■ [동향] 루프트한자 프랑크푸르트 공항 파업에 따른 대규모 여객 감소

- 여객 및 운항 편수 급감: 지난 4월 발생한 루프트한자 조종사 및 객실 승무원 노조의 연쇄 파업(총 6일간의 인사 파업) 여파로 인해, 독일 최대 허브인 프랑크푸르트 공항(FRA)의 4월 여객 수가 전월 대비 11% 감소한 480만 명을 기록함. 파업으로 인해 단기간에 약 50만 명의 여객 손실이 발생함.
- 운항 및 화물 지표 감소: 항공기 운항 편수(이착륙) 역시 전월 대비 11.6% 감소한 34,623회를 기록하였으며, 항공 화물 수송량도 168,526톤으로 전월보다 0.6% 감소함. 이러한 감소세는 부활절 연휴 시작 시점이 전년과 달리 올해는 4월에 일부만 걸친 점도 복합적으로 작용함.

■ [동향] AIDA 크루즈 판결과 여행업계 할인·캐시백 경쟁 가속화

- 독일 법원의 반독점 판결: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대형 크루즈 선사 AIDA 크루즈가 서비스 제공업체인 S-Markt & Mehrwert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IDA 측의 패소 판결을 내림. AIDA는 대리점 계약을 통해 여행사들이 고객에게 커미션(판매 수수료)의 일부를 할인이나 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했으나, 법원은 이 조항이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 제1조를 위반한 ‘반경쟁적 제한’ 이라고 판결함.
- 유통 시장 경쟁 격화: 최근 Holidaycheck, Check 24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이 캐시백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면서 오프라인 대리점 기반의 전통적 유통망 유지가 위협받고 있음

나, 법원이 중개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보장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향후 여행업계 전반에서 고객 대상 할인 및 리베이트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임.

■ [동향/전망] 독일 여행사(오프라인 카운터) 이용 감소 및 온라인 전환 가속화

- 소비자 예약 채널의 구조적 변화: 북유럽 관광·온천연구소(NIT) 및 휴가여행조사연구협회(FUR)가 매년 1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독일인 여행 성향 분석(Reiseanalyse) 트렌드 스터디 2035’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약 비율은 2010년 14%에서 2025년 29%로 두 배 이상 급증함. 반면 전통적인 오프라인 여행사를 통한 예약은 동기간 36%에서 24%로 축소됨.
- 2035년 미래 전망과 세대별 분화: 이러한 흐름은 지속되어 2035년에는 오프라인 매장 카운터 예약 비중이 18%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됨. 다만 흥미로운 점은 14~29세의 젊은 층의 경우 5일 이상의 장기 여행 시 오히려 오프라인 카운터를 찾는 비율이 2005년 33%에서 2025년 38%로 역주행 상승하는 트렌드를 보임. 이는 30~49세 연령층의 오프라인 이용률 급감(-6%p)과 기존 장년층(50대 이상)의 미세한 감소를 일부 상쇄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인공지능(AI)의 활용 현황: 인공지능(AI) 기술은 여행 ‘영감 제시 및 일정 기획(Inspiration)’ 단계에서는 매우 활발히 도입되고 있으나, 실제 ‘결제 및 예약’ 단계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조사 결과 지난해 독일인의 20%가 여행 계획 수립에 AI를 활용한 경험이 있으며, 31%는 향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반면, 전체의 49%는 앞으로도 여행 계획에 AI를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혀 기술 수용도에 대한 소비자 양극화가 뚜렷함.

(참고자료) 관광 전문지 언론 기사 등

<https://www.fvw.de/touristik/datenanalyse/umfrage-von-yougov-und-btw-wirtschaftliche-unsicherheit-bremst-nachfrage-261296>

<https://www.fvw.de/touristik/vertrieb/interview-mit-wirtschaftsexpertin-umsaetze-maerkte-wie-der-nahost-krieg-den-tourismus-neu-ordnet-261252>

<https://www.fvw.de/touristik/verkehr/april-daten-frankfurt-airport-leidet-unter-lufthansa-streiks-261249>

<https://www.fvw.de/touristik/vertrieb/urteil-steht-fest-aida-scheitert-im-prozess-um-rueckverguetungen-261193>

<https://www.fvw.de/touristik/vertrieb/analyse-auf-der-dtps-jubilaemstagung-trendstudie-s-o-stark-koennten-reisebuero-buchungen-bis-2035-sinken-261067>